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 연구

- 베르그송의 지속 이론과 데리외즈의 연속성 이론을 중심으로 -

양희영*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ntinuity Expressed in Modern Fashion Design

- Focusing on the Continuance Theory of H. Bergson
and the Continuity theory of J. Deleuze -

Hee-Young Yang* · Sook-Hi Yang**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6. 4 토고)

ABSTRACT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s a relative concept, and there are various categories of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our circumference. Generally,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including between the difference and the variety have been regarded as a discontinuity. Concept of the continuity includes between the quantitative continuity and the qualitative continuity. qualitative continuity has organic characteristic, which encourages creating something permanently through the flowing of the time.

Therefore, this thesis has studied like this complex social condition and various relationship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ocusing on permanently creative movements and behaviors equal to the 'continuance' theory of Henri Bergson and 'continuity' theory of Gilles Deleuze. This thesis classifies characteristics of the qualitative continuity into spatiotemporal and spatial continuity, and subdivides into 3 sets: perceptual continuity, spatial continuity, transferring continuity of physical experience, immaterial informational continuity, and fluid continuity with environment.

Continuous viewpoint, which accepts the existing elements and allows them to flow liberally, should be present more appropriate thinking direction in explaining the complex situation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rather than discontinuous viewpoints focused on the only changing moment.

Key words: continuity(연속성), qualitative continuity(질적 연속성), continuance(지속), perceptual continuity(지각적 연속성), spatial continuity(공간적 연속성), transferring continuity of physical experience(신체경험의 전이적 연속성), Immaterial informational continuity(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fluid continuity with environment(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I. 서론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주변에는 다양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이와 다양성이 생성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은 불연속성으로 인지된다. 그러나 이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 질적 도약 단계가 일어나는 순간만을 포착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속성의 개념 가운데 정지되고 제한되어진 어떤 상태나 대상을 파악하는 무기체적인 '양적 연속성'과 시간의 흐름 내에서 지속적인 생성을 창조하는 유기체적인 '질적 연속성'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과잉, 무의미 등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카오스의 특성은 새로운 요소들의 생성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요소들의 결합과 해체에 의한 자유로운 접속과 배열에 기인하기 때문에 변화의 순간에만 집중하는 불연속적인 시각보다는 기존 요소를 수용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을 자유롭게 유동시키는 연속적인 시각이 현대 패션의 복잡다단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한 사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사회현상과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성을 질적 연속성이라는 사유, 즉 베르그송(Hern Bergson)의 '지속'이나 들뢰즈(Jill Deleuze)의 '차이의 연속적인 생성'과 같은 지속적인 창조적 행위나 움직임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베르그송의 지속 이론과 들뢰즈의 차이의 생성에 의한 연속성은 세계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삶으로 인지한 유기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단편적이고 지협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 거시적이고 통시적으로 세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베르그송의 지속과 들뢰즈의 연속성 이론에서 분석되어진 질적 연속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양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한다. 우선,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개념 정립을 위해 신체, 패션, 철학, 미

학, 건축, 예술 담론과 관련된 패션서적, 철학서적, 과학서적, 예술관련 서적, 선행연구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위주로 한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패션전문서적, 패션잡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출한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에 이용된 사진 자료는 이세이 미야케(Isey Miyake), 요지 암모토(Yoji Yamamoto), 요시키 히시누마(Yosiki Hishinuma,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미치코 코시노(Michiko Koshi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ueen),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 율리 텡(Yoehlee Teng), 마르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 갈야 로젠펠드(Galya Rosenfeld), 존 리비(John Ribbe)의 1997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S/S, F/W 컬렉션과 2000년도 이후 출판되어진 외국 패션서적¹⁾, 인터넷 사이트²⁾에서 추출한 총 3000여점의 자료를 수집하여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이론을 이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의 분석 모형의 분류 방식과의 적합성을 패션전문가 5인의 검증을 받아 선정된 328장의 실증자료로 연구자의 이론적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되어진 용어는 철학, 건축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빌려와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³⁾

본 논문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일반적인 개념과 시간과 공간에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활용되어질 연속성의 개념을 정립한다.

2. 베르그송의 지속 이론과 들뢰즈의 연속성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이론과 시간, 공간에 서의 연속성이나 불연속성과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연속성의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3. 상기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의 특성을 고찰한다.

II. 연속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주변에는 다양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연속성은 대상, 체계, 과정들 간의 전반적인 연관이나 상호 이행하는 상이한 발전 단계들 간의 불분명한 '경계'에서 표현되는 반면, 불연속성은 개별적인 물질적 대상, 체계, 과정 등의 상대적 자립성,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어떤 질에서 다른 질로의 비약적인 이행에서 나타난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1) 시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시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철학에서는 크로노스(chronos) 시간과 아이온(aion, aeon)의 시간으로 분류하여 설명되어진다. 크로노스는 현재시간을 의미하고, 아이온은 오랜 시간, 영원성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⁴⁾. 크로노스 시간에서는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며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흡수하고 응축한다. 반면, 아이온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만이 존속하며 현재를 과거와 미래로 무한히 분할한다.⁵⁾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체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특이점에 집중되어 인지되는 시간으로, 특이점으로서의 현재만이 중요하며 따라서 각각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간이 분절되어지는 불연속적인 시간으로 인지된다. 그러나 아이온의 시간은 물체성의 변화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비물체성인 무수한 사건들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을 통시적인 시각을 통해 인지하는 것이며, 새로운 사건의 생성은 다차원의 계열 내에서 매순간마다 상이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시점을 특이점으로 집중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이다.

과학에서는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을 통해 시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해하는데, 절대적 시간은 시간의 보편성이 대상의 상태에 있어서의 연속성과 등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의 개입이 없이 동일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상대적 시간은 상이한 많은 요소들의 개입을 허용하고 이러한 순간에 과거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차이의 간극이 발생되는 시간의 특수성을 인지한 개념이다.⁶⁾

2) 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라이프니츠(G.W. Leibniz)의 주름,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적 시공간, 프렉탈(fractal) 이론, 초끈(string) 이론 등은 공간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인지한 이론이다. 특히 라이프니츠는 무한하게 복수화 된 관계를 드러내는 '모나드(monad)'의 사유⁷⁾를 활용해 주름 이론을 발전시켰다. 주름 개념은 모든 존재가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다른 부분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사물은 모두 주름 잡혀 있다는 것으로, 연속의 계기와 불연속의 계기가 동시에 드러나는 접힘의 개념을 포함한다. 주름은 기본적으로 접혀지는 불연속적인 특이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속과 불연속을 동시에 드러내며 다양한 관계를 통해 뮌비우스(Möbius)의 띠처럼 안과 밖이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다양성의 공간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시공간 개념은 불규칙하고 우연적인 요소들의 개입시켜 절대 시간관을 상대적 시간관으로 전이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변화와 차이가 생겨나는 복합적 공간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상이한 공간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관입되는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프렉탈은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있는 구조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고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주름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프렉탈적 공간에서 드러나는 연속성은 반드시 동일 상태나 동일 형태의 반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일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가 연속되어지는 것에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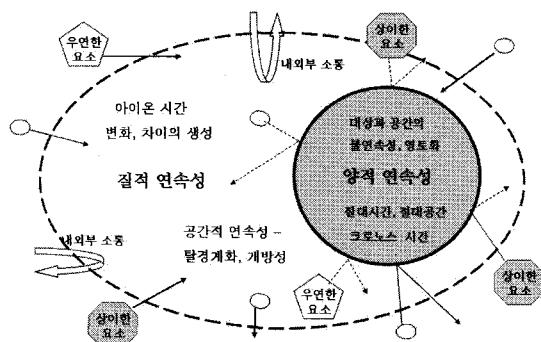
바슐라르(Bachelard Gaston)의 철학, 카오스(Chaos) 이론,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 이론은 지속적인 시간을 분절하여 개별적 대상을 관찰하는 미시적 관점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순간인 특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포착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공간과는 상이한 공간적 불연속성이 나타난다.

2. 질적 연속성

일반적으로 대상의 동일 상태의 지속만을 의미하는 양적 연속성은 개별적인 대상에 근거한 협의의

연속성이며, 대상과 더불어 전체 공간에서의 변화와 생성, 차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질적 연속성은 양적 연속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의 연속성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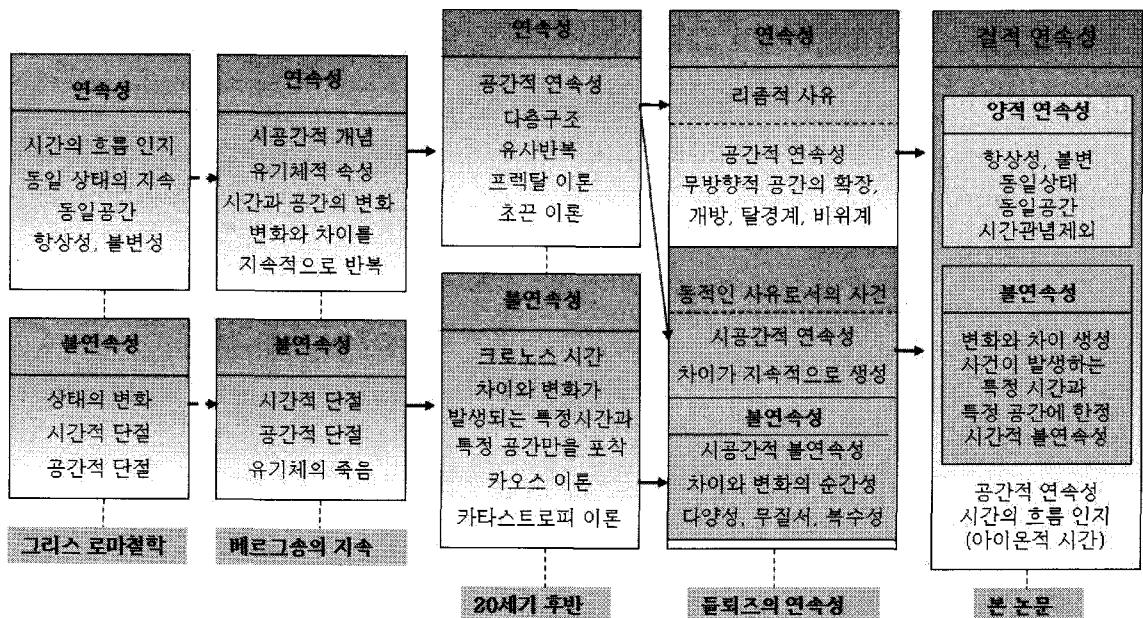
고대 그리스 철학과 유클리드 기하학,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철학과 뉴튼(Isaac Newton)의 절대적 시공간은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상이한 요소들의 접속이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동일상태가 지속되어지는 양적 연속성이 나타난다. 또한 시간개념이 제외되거나 절대 시간에서의 대상들의 동일한 상



〈그림 1〉 질적 연속성과 양적 연속성

태의 연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대상들의 개별적인 관점에서는 동일 상태의 연속성이 양적 연속성이 나타나지만, 전체 공간을 인지하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상이한 대상들이 독립적이고 폐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의 불연속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그림 1〉은 변화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 상태나, 동일 시간, 동일공간이 지속되어지는 양적 연속성과, 이를 포함하고 변화와 차이의 지속적인 생성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아이온시간에 의한 질적 연속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고찰할 연속성은 기존의 공간개념에서 파악한 항상성으로서의 연속성과, 변화와 차이가 생성되는 특정시간 내에서만 고찰되는 특이점으로서의 가변성과 순간성을 특성으로 하는 불연속성 개념까지도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로서의 질적 연속성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그림 2〉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활용되어질 연속성의 개념변화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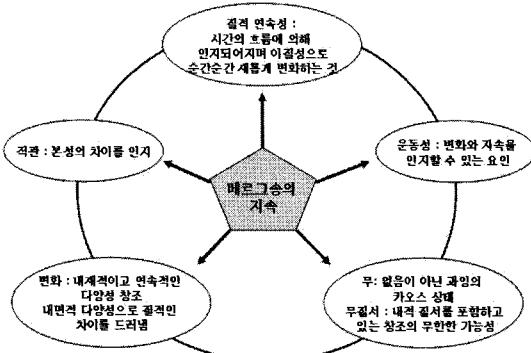


〈그림 2〉 본 논문에서 활용되어질 연속성의 개념 변화

III.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연속성 개념에 대한 고찰

1. 베르그송의 지속이론

베르그송의 사유는 서양 철학사에서 현대 프랑스 철학의 출발점으로 인식되어진다. 베르그송의 지속은 공간 속의 위치들이나 시간 속의 순간들, 움직일 수 없는 단편들로 재구성된 양적인 지속⁹⁾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의해 인지되어지는 구체적인 '질적인 지속'이다. 베르그송은 변화와 지속을 운동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운동이라는 존재론적 가설을 가지고 세계를 연속적으로 인지했다.



〈그림 3〉 베르그송의 지속 이론

베르그송의 지속은 질적이고 연속적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를 특성으로 하며 근대 이전의 절대 시간관과는 상이한 방식인 아이온적 시간과 관계한다. 또한 이것은 단절이나 계속과 같은 측정단위가 있는 공간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시공 연속체적인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질적 연속성의 사유이다. 다음 〈그림 3〉은 베르그송의 지속 이론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2. 들뢰즈의 연속성 이론

들뢰즈는 결코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 현존의 장을 중요하게 인지하였으며, 모든 존재는 그 안에 무한히 많은 다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

다. 들뢰즈의 연속성 이론은 차이화(differentiation)의 적극적 운동이며 생성(becoming)의 환원할 수 없는 다양성을 인지하는 이론으로, 베르그송의 이론을 존재론적으로 독해하면서 차이의 개념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1) 리좀(rhizome)적 사유

들뢰즈는 그의 저서 「천의 고원」에서 수목에서 온 유되는 서구철학을 비판하기 위해 리좀적 사고방식을 제안하였다. 리좀은 줄기가 곧 뿌리인 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심을 가지지 않는 이질적인 선들이 상호 교차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복수의 선들이 뻗어나가는 것으로, 하나의 중심이 아닌 복수의 중심이며 이들은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리좀적 사고는 뿌리 없는 식물처럼 특정한 사고의 기반 없이 다양한 힘들의 차이와 복수성을 다원화하고 산포시키기 때문에 중심성, 통일성, 공간적인 점유가 없으며 위계적으로 조직되지도 않는다. 이것은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질서들이 결합하고 해체되는 무질서가 아닌 '비질서의 장(場)'이다.¹⁰⁾

2) 동적인 사유로서의 사건

들뢰즈의 생성 철학은 구조주의에 대응하여 생겨났으며 생성, 운동, 변화와 사건을 사유한다. 이것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재현체계의 전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건의 사유를 통해 정적인 구조주의를 역동화 시키고 모순으로 보이는 대상을 간의 관계를 해소시킨다. 들뢰즈가 사유한 사건은 유물론의 원자들과 같은 물질로는 환원되지 않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고대 플라톤(Platon)의 이분법¹¹⁾을 형상의 작용을 수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전자는 원본과 복사본, 후자는 시뮬라크르(simulacre)와 사건으로 대체하였다.¹²⁾

들뢰즈의 사건은 명사나 형용사와 관련된 정적인 사유가 아니라 동사와 관련된 동적인 사유이다. 사건은 '되기(becoming)'를 의미하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 삶을 야기한다. '되기'는 단순한 사물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사건의 계열화를 통해 다양하게 연결되어진다. 즉 사건의 사유는 생성과 운동, 변화를 사유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사건이 형성하는 구조, 코드는 차갑고 정적인 구조가 아닌 생동감 있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생성하는 역동적인 구조가 된다.

들뢰즈는 사건 개념을 통해 무한한 잠재성과 역동성, 다양성을 함축하는 무의미와 역설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상이한 계열들을 서로 연결시키며 관계짓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생성되는 사건들을 고착화하거나 확정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부유시키는 개념이다. 들뢰즈 철학의 중심은 존재론에 있으며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탈 중심주의를 지향한다. 그에게 있어서 존재는 '차이'이며 이것은 끊임없는 탈 중심화를 지향한다. 들뢰즈는 이러한 차이를 긍정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물을 차이를 만드는 것이며 다른 것을 만나서 또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인 동시에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음 <표 1>은 들뢰즈의 연속성 개념을 요약, 설명하고 있다.

3.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연속성 이론에 기초한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의 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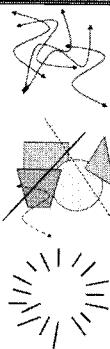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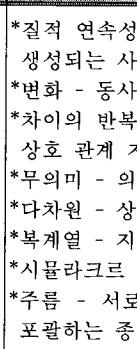
베르그송의 지속 이론과 들뢰즈의 리듬적 사유와

동적인 사유로서의 사건이론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을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 이것은 베르그송의 지속과 들뢰즈의 연속성 이론에서 분석되어진 질적 연속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각적 연속성, 공간적 연속성,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지각적 연속성과 공간적 연속성,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은 신체와 패션사이의 연속성에 관한 것이며,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은 신체외부와 패션 사이의 연속성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지각적 연속성은 신체와 패션사이의 공간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고찰이며, 공간적 연속성은 패션 공간 자체의 확장과 해체, 변화와 같은 공간 사용의 연속성,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은 다양한 지펴나 단추, 후크와 같은 패스너를 이용하여 패션의 형태와 용도, 공간의 변화의 연속성에 주목하였다.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은 패션과 디지털 기기의 기능이 결합되어진 패션기능의 연속성,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은 패션의 공간과 건축적 공간과의 결합을 통해 건축화 되어진 패션 형태와 공간, 기능의 연속성에 관한 고찰이다.

이러한 분류는 질적 연속성의 특성 중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변화와 다차원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동일 형태가 지속되

<표 1> 들뢰즈의 연속성 개념

들뢰즈의 연속성	
리듬적 사유	동적인 사유로서의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연속성 - 중심이 없는 이질적인 선들이 방향성 없이 상호교차하면서 뻗어나가는 것 *복수성 - 다양한 힘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산포 *접속 - 이질적인 것들이 상호 자유로이 관계하며 접속 *개방성 - 탈경계화, 탈영토화로 중심성, 통일성, 위계성이 존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적 연속성 - 동일 형태나 상태의 반복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사건들이 생성을 야기하는 차이의 반복 *변화 - 동사 -되기(becoming)와 관련된 동적 사유방식 *차이의 반복 - 발산을 통해 차이를 인정하고 상이한 것들을 상호 관계 지운 *무의미 - 의미 없음이 아닌 의미의 과잉 *다차원 - 상이한 차원들의 모순을 해소하고 포용 *복계열 - 지속적으로 사건이 생성되는 역동적인 구조 *시뮬라크르 - 표면 효과, 일시적, 순간적 *주름 - 서로 상반되는 양방향의 운동을 모순 없이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적 원리 

〈표 2〉 베르그송의 이론을 이용하여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의 분류

베르그송의 지속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	
직관 →	신체와 패션 공간과의 연속성	-되기(신체의 패션화)	지각적 연속성
공간 변화 →		시각적 연속성(투명성을 통한 연속성)	
변화 →		공간의 확장	
운동성 →	패션 자체 공간의 연속성	공간의 상호관입	공간적 연속성
무질서, 무 →		유동적 공간	
변화, 운동성 →	패션의 자체의 공간과 형태, 용도의 연속성	모듈러 시스템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
변화, 운동성 →		풀딩 시스템	

리즈마적 사유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		
개방성 →	패션 자체 공간의 연속성	공간의 상호 관입	공간적 연속성
공간적 연속성 →		유동적 공간	
접속 →	패션의 자체 공간과 형태, 용도의 연속성	모듈러 시스템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
개방성, 복수성 →		풀딩 시스템	
복수성, 접속 →	패션 기능의 연속성	웨어러블 컴퓨터와 디지털 웨어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복수성, 개방성 →	패션의 형태와 공간, 기능의 연속성	사회나 자연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표 3〉 들뢰즈의 이론을 이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의 분류

동적인 사유로서의 사건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	
시뮬라크로, 차이 →	신체와 패션 공간과의 연속성	-되기	지각적 연속성
공간 변화 →		시각적 연속성	
주름, 차이의 반복 →		공간의 확장	
복계열, 변화 →	패션 자체 공간의 연속성	공간의 상호관입	공간적 연속성
무의미, 다차원 →		유동적 공간	
변화, 차이의 반복 →	패션의 자체 공간과 형태, 용도의 연속성	모듈러 시스템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
변화, 다차원 →		풀딩 시스템	
다차원, 복계열 →	패션 기능의 연속성	웨어러블 컴퓨터, 디지털 웨어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다차원, 복계열 →	패션의 형태와 공간, 기능의 연속성	자연환경과의 유동성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변화, 차이의 반복 →		사회환경과의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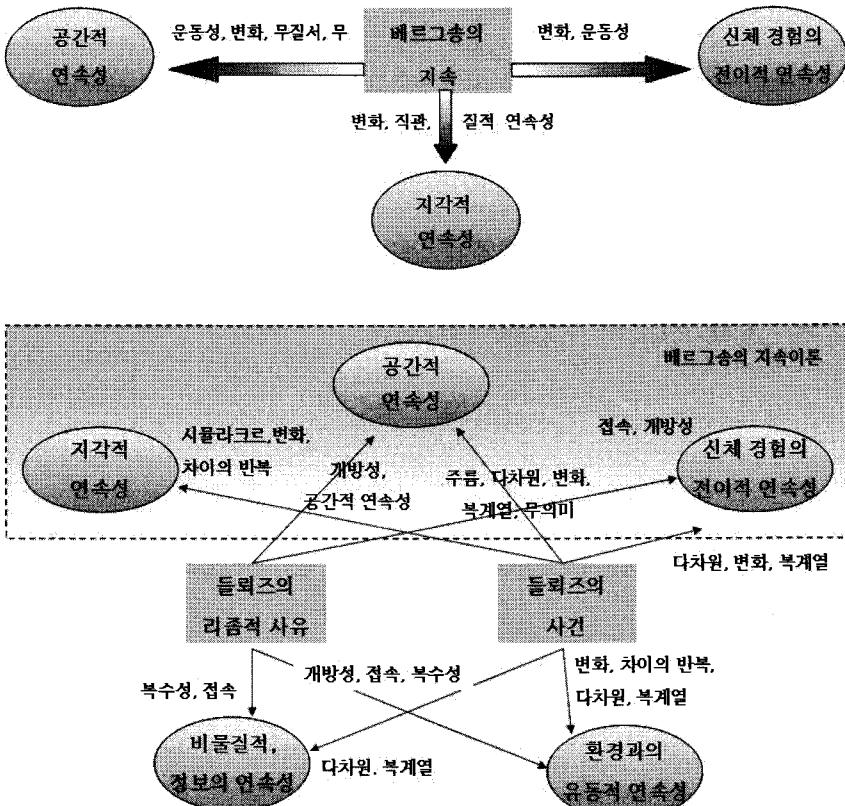
거나 특정 스타일로 고착화 되어진 패션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다음의 〈표 2〉와 〈표 3〉은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연속성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을 분류한 것이다.

다음의 〈그림 4〉는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이론을 이용하여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와 패션사이의 연속성을 분석하는데 활용한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IV.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은 상기의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크게 신체와 패션사이의 지속적인 공간관계의 변화나 열린공간을 구성하는 신체와 패션사이의 연속성과 패션사이의 과학기술, 사회,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패션공간이 복합적이거나 가변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신체외부와 패션사이의 연속성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다시 해체성을 위주로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시각적 연속성과 변화를 드러내는 되기를 통한 지각적 연속성, 내외부가 소통하는 열린 공



〈그림 4〉 베르그송과 드뢰즈 이론을 이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의 분석 모형

간으로 변화한 공간적 연속성, 신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패션 공간 자체의 가변성을 경험하는 신체경험의 전이적 연속성, 패션과 정보가 결합되어 기능과 형태의 확장을 드러내는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직업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유목민 등장, 테러와 자연재해를 통한 공포감, 흠티스의 증가 등)에 적응하고자 패션의 기능이 변화, 확장되거나 건축과 결합하여 건축적 패션으로 변화하는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으로 소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1. 신체와 패션사이의 연속성

1) 지각적 연속성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난 지각적 연속성은 불연속적인 변화를 통해 인간의 감각을 A→B로 급변

시키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상호 소통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흐름’을 지각하게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신체와 패션 공간사이의 연속성에 대한 고찰로 패션에서 일련의 변화나 전환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인지되는 드뢰즈의 ‘되기’, 숨겨져 있던 내부구조와 구성 선을 드러내는 해체주의와 투명성을 통해 내부를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씨쓰루 룩에서의 ‘시각적 연속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1) 되기

‘되기’는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정된 지점에 대응하는 상태와는 달리 두 지점사이에서 발생하며 상이한 대상들의 ‘만남’과 ‘접속’,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물질성을 가지는 구조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 간의 유동적인 힘과 에너지를 포착하여 가시적인 형태들 뒤에서 작용하는 비가시적 힘들의 현전을 드러내고 있다. 패션은 신체와 더불어 끊임없이 '되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신체는 패션을 통해 다른 사람, 다른 대상으로의 지속적인 되기를 시도하며, 패션은 신체의 이러한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다른 무엇으로의 변화를 도모한다. 신체와 패션을 통해서 드러나는 '되기'의 과정은 신체의 패션화, 패션의 신체화, 패션의 대상화나 자연화 등으로 분류되어진다.

신체의 패션화는 신체와 패션사이의 상호 인터페이스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신체 자체를 의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복과 신체 사이에 형성되는 지각적, 공간적 경계를 소멸시키고 있다. 패션의 신체화나 패션의 대상화는 패션 자체가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무기체라는 사실로 인해 신체의 패션화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화가 용이하지만, 극적이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 살아있는 신체 자체의 변화와 훼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체의 패션화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과 두려움,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패션의 신체화, 대상화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유아기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되찾은 듯한 즐거움과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사진 1>은 프린(Preen)의 저스틴 손顿(Justin Thornton)과 티아

브렉아지(Thea Bregazzi)의 1997년 S/S 컬렉션으로, 1930년대 엘자 스키야 빠렐리(Elza Skiaparelli)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던 초현실주의 기법인 눈속임 기법(Trompe l'oeil)을 이용하여 의복이 신체화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시각적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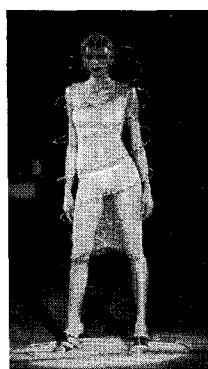
패션의 해체주의적 경향은 안과 밖을 도치시키거나 직물표면을 컷팅하여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내부의 구조적 특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며, 내부의 숨겨진 부분에 투명성을 도입하여 내부와 외부사이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사진 2>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ueen)의 1999 S/S 컬렉션에서 보여지는데, 반짝이는 씨쓰루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된 원피스는 모델의 신체 자체가 의복 패턴으로 활용되며 원피스의 아래 부분에서 연결된 나선형의 고리와 함께 미래주의적인 느낌을 제공한다. 이것은 의복을 착용하여 공간적으로 신체를 외부로부터 차단함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신체를 노출시켜 감각과 공간이 일치하지 않는 해체주의 의복의 역설의 미의식을 드러낸다.

2) 공간적 연속성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공간적 연속성은 주름과 오리가미(Origami), 공기주입에 의해 패션이 차지하는 공간이 확대되는 '공간의 확장', 블립(Blob)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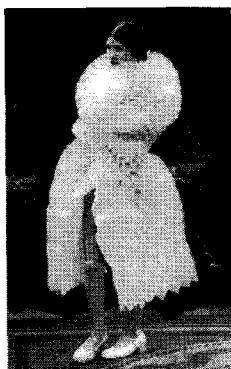
<사진 1> Preen¹³⁾



<사진 2> Alexander McQueen¹⁴⁾



<사진 3> Alexander McQueen¹⁵⁾



<사진 4> Junya Watanabe¹⁶⁾

꼬임(Twisting)에 의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 소통하고内外부공간의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공간의 상호관입', 블러링(Blurring)과 재구성, 미구성에 의해 패션에 있어서의 새로운 공간 창조와 기존 공간의 해체, 각 공간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 등이 드러나는 '유동적 공간'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1) 공간의 확장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의복이 창조하는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물에 규칙적인 또는 불규칙적인 주름을 형성시키거나 의복자체를 풍선과 같은 공기주머니로 변형시키는 방식을 통해 의복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다. 주름은 단순히 접고 겹치는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확장시키고 입체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규칙적인 주름과 불규칙적인 프레탈적 주름이 이용되어진다. <사진 3>은 알렉산더 맥퀸의 2006년 F/W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조밀하게 구성되어진 상의 부분과 하의 부분의 불규칙한 주름에 의해 네크라인과 소매부분이 구성되어지고 풍성한 스커트의 볼륨감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절개나 연결 같은 구성기법을 탈피하여 과도한 주름 분량을 허리선 부분에서 봉제함으로써 어깨 부분과 스커트 부분이 봉제되지 않은 주름에 의해 확대되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오리가미는 종이를 반복적으로 접는 폴딩 방식에 의해 규칙적이지만 복잡한 공간 정렬을 제시하는데,¹⁷⁾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다른 종이를 접고 펼치는 방식에 의해 3차원적인 입체 공간을 형성하고 외부로 확장되기 때문에 단순히 접고 펼치는 일반적인 주름 방식과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의복은 봉제와 재단이 불필요한 일체형으로 이루어진다. <사진 4>는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의 2001 F/W 컬렉션이다. 이것은 나일론 오간자(organza)를 이용해 수백 개의 층을 만들어 스티치 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복잡한 오리가미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신체의 굴곡에 따라 직물의 주름 부분의 공간이 달라지며 따라서 다양한 크기와 상이한 형태의 파장이 형성되며 각각의 폴딩은 파이와 같은 층을 구성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입체감 있는 외

관을 창조한다.

공기주입에 의한 의복 공간의 변환 및 확대에 대한 시도는 1960년대 스페이스 에이지에 처음 시도되었는데, 의복은 실루엣의 재정의를 위해 공기로 가득 찬 공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1990년대 미치코 코시노(Michiko Koshino)에 의해 다시 탐구되었고, 그녀의 공기에 의해 부풀려진 의복은 반투명한 소재를 이용하여 신체를 비쳐보이게 함으로써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옷의 무게를 감소시켜 시각적으로 가벼움의 느낌을 제공하였다. <사진 5>는 미치코 코시노의 2000년 S/S 컬렉션 작품으로, 공기로 부풀릴 수 있는 메탈 소재를 사용하여 코트를 구성하였다. 미치코 코시노는 메탈소재를 사용하여 미래적인 아이디어를 표출했으며, 메탈소재는 일반적인 직물보다 역동적이며 유동적인 의복 구성을 가능케 한다.

(2) 공간의 상호관입

상호관입에 의한 공간의 연속성은 각 부분들의 구별이 없어져서 통합되거나 무정형의 덩어리를 형성하는 블립(blob)과, 꼬임에 의해内外부 공간이 상호 교차되는 것에서 고찰하였다. 자연의 '불규칙적이고 유기적인 생물의 형태'나 '척추가 없는'이라고 설명되는 블립은 실체가 없는 무정형의 형태를 창조해낸다.¹⁸⁾ 고정된 부분이 없거나 고정시키는 프레임이 없는 블립은 기존의 정사각형이나 각, 직선에 의해 주도되던 대상의 형태를 해방시켜 자유롭고 유기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블립 형태들은 고정되지 않는 젤과 같은,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유연성을 드러낸다. <사진 6>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1999년 F/W 의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의복의 구성 방식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무정형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의복 각 부분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구성하는 기준의 방식에서 벗어나 어떠한 부분도 구성하지 않으며 신체 전체를 불규칙하게 감싼다. 또한 남겨진 부분은 앞으로 길게 늘어지거나 소매부위로 다시 연결되는 등 비구성적인 형태를 창조하며,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의복 구성 요소들 간의 공간과 위계를 위반한다.

트위스팅(twisting)은 ‘뒤틀림, 꼬임, 감김, 엉킴, 굽이침, 꼬아 합침’ 등의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단순히 감는 것이나 엉기는 것과는 달리 면이 회전하면서 다른 공간과 차원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2차원의 평면성이 아닌 3차원의 입체성을 특징으로 한다. 꼬임은 빅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이 교차하면서 회전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안이고 어느 부분이 밖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서로 꼬이고 얹힌 모양을 구성하여 내외부가 상호 관입되고 소통되며, 따라서 연속되는 공간을 형성시킨다. <사진 7>은 요시키 히시누마의 2002년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얼굴 주변을 크게 회감기는 꼬임은 허리부분에서 과도하게 비틀려 스커트와 함께 하나의 원피스로 통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의복 위에 심을 낸 유연한 주름을 통해 독립적인 조형미과 공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허리 부분에서 드레이프지는 스커트의 늘어진 주름과 결합되어 오히려 이전의 조형적 공간을 상실한다. 이는 하나의 의복에서 독립적인 조형성의 창조와 상실을 동시에 드러내어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의복 공간의 상호관입을 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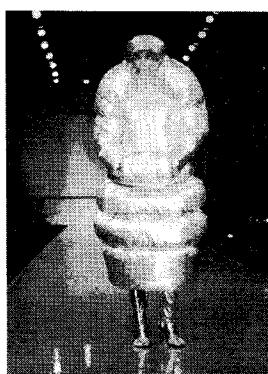
(3) 유동적 공간

유동적 공간에 의한 공간적 연속성은 각 공간의 요소들을 파괴하거나 재조합하는 블러링(blurring), 의복을 해체하고 각 부분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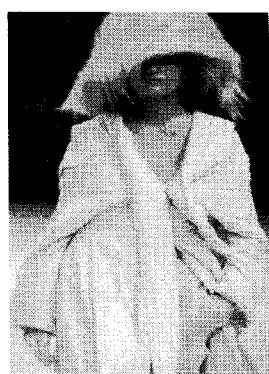
적으로 재구성하는 미완성으로서의 재구성, 형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무형태나 무정형을 창조하는 미구성으로 고찰하였다.

블러링(blurring)은 대상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조합하거나 재배열하는 것으로, 이들 사이의 ‘경계 흐리기’를 의미한다. 패션에서 나타나는 블러링은 기존의 복이 차지하던 공간 배열방식이나 의복 구성 요소들을 재배열시켜 시각적으로 언캐니한 감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외부적·기능적으로는 기존의 질서를 와해시켜 새로운 구성 방식이나 요소들의 도입을 허용하며, 내부적·형태적으로는 요소들 간의 새로운 방식의 조합을 가능케 한다. <사진 8>은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의 2005년도 S/S ‘복잡한 광경(Blind Scape)’ 컬렉션에서 발표된 의복으로 가죽과 비치는 소재가 상호 자유롭게 교차하면서 각 부분이 내부로 은폐되기도 하고 외부로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이 부분들의 교차 방식에 따라 신체의 노출 정도가 달라진다.

재구성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옛것의 정취를 지니며 향수를 드러내는 것으로, 기능이 전환되거나 첨가되는 것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더불어 미래까지 겹쳐진 공간을 창조한다. 재구성된 의복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는 의복으로 형태와 내용면에 있어서 단면적이고 직선적이어서 시각 상 시간적, 역사적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연대기적인 시간의 인식을 방해한다. 그러나



<사진 5> Michiko Koshino, 2000¹⁹⁾



<사진 6> Yohji Yamamoto, 1999²⁰⁾



<사진 7> Yoshiaki Hishinuma, 2002²¹⁾



<사진 8> Hussein Chalayan, 2005²²⁾

구조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완성이 아닌 미완성의,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기반적인 의복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 9>는 사이먼 쏘로굿(Simon Thorogood)의 2000년 F/W 컬렉션으로, 소매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원피스 앞의 바디스 부분에 세로의 긴 흠을 네크라인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여 이를 통해 팔을 외부로 노출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의복 구성의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구성 요소를 창조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의복의 좌우 대칭과 형태, 실루엣이 파괴되어진다. 의복에서 새롭게 생성된 구멍에 의한 이러한 공간은 의복 각 부위를 자유롭게 소통시키며 외부 공간과 신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유동적 공간인 동시에 열린 공간이다.

미구성은 의복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삭제하거나 요소들을 혼합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합친 상태, 불규칙적인 조각이나 부분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 신체를 은유하는 의복 실루엣을 형성하는 심이나 다크 같은 구성 선을 없애버리는 것 등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구성된 것들의 경계를 왜해시켜 단일 공간으로 배치시키거나, 전혀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의복 실루엣을 파괴시킨다. 또한 그동안 신체를 바탕으로 위치와 위계가 고정되었던 의복 구성 요소들을 자유롭게 유동시키며 그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질적인 형태를 창조한다. <사진 10>은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1998년 S/S 컬렉션으로, 한장의 긴 천을 접고 박아서 원피스 형태로 제작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원피스에서 보여주었던 프린세스 라인이나 다크 등의 구성 선이 없는 대신 다양한 방향으로 접히고 봉제되어 나타나는 비구성적 선들로 제작되어 있다. 의복은 하나의 레이어로 형성되지 않고 접히는 방식에 따라 각 부분이 다른 레이어로 구성되어지며, 직물의 내부와 외부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복잡한 외부 패턴을 형성한다. 이것은 또한 2차원의 평평한 직물이 신체를 따라 무작위로 접혀 구성되면서 3차원적인 형태미와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3) 신체 경험에 의한 전이적 연속성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은 전축적 구성 방식을 차용하여 이를 패션에 도입한 모듈러(modular) 시스템과 폴딩(folding)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전이적 연속성은 공간 변화에 따른 갑작의 연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전축적 구성 방식에서 보다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1) 모듈러 시스템

모듈러 시스템은 전체의 재구성이 아닌 어느 한 부분의 교체를 통해 나머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각각의 모듈로 구성된 전체의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며 특정 부분의 조합만을 변화시켜 새로운 스타일로의 변신이 가능하므로 다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특성을 지닌다. 고정되고 확정적인 봉제 방식을 이용한 기존의 의복 구성 방식이 자유로운 변화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적 공간구조에 기인한다면, 요소들 간의 결합을 해체시키고 이들을 상호 자유롭게 접속시킬 수 있는 패스너를 활용한 모듈러 시스템은 단순한 조작을 통한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의복 구성 요소들을 이질적인 결합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재창조하였다.

의복을 부분으로 분할하고 가장자리에 고리로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다른 부분들과 연결된 의복은 고리에 의해 각 부분들 간의 틈을 형성하며 연결되어진다. 또한 고리에 의해 연결된 부분들은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단위별로 많은 모듈을 구성할수록 다양한 의복 스타일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의복은 봉제에 의해 구성된 것보다 신체와 더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의복의 각 모듈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의복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고리는 외부 공간과 신체 공간 사이의 작은 틈을 형성하여 내외부 공간을 상호 소통시켜주는 열린 구조를 형성한다(<사진 11>).

(2) 폴딩 시스템

폴딩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 조직과 이것들의 다양한 기능적, 형태적인 잠재적 가능성을 변화의 힘과 연결시켜 움직임에 의한 연속적인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접기(folding)와 펴기(unfolding)를 이용한 폴딩 시스템은 연속적인 표면으로 공간 전체를 연결시키며 상이한 각각의 지점과 공간은 연결됨과 동시에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적 변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다목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다. <사진 12>는 만달리나 덕(Mandarina Duck)의 2001년 F/W 컬렉션에서 발표된 ‘잭팩(Jackpack)’이다. 이것은 착용 가능한 잠재성을 자닌 백팩(backpack)으로 옷장에서의 능률적인 보관을 가능케 하여 옷장의 사용공간을 최대한으로 넓히고, 다양한 기능과 변형성의 원리를 가방 안에 감추고 있는 재킷이다. 백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복의 구성 요소들을 가방 안에 집어넣어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착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방을 다시 재킷으로 전환하여 착용할 수 있게 하는 다목적 의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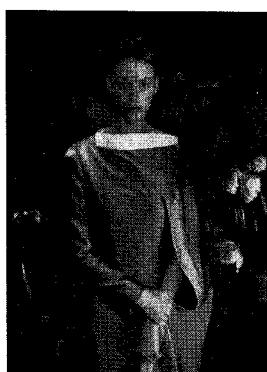
2. 신체외부와 패션사이의 연속성

1)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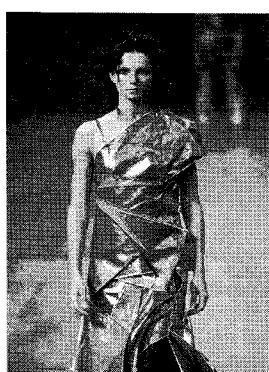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은 패션 공간에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가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패션 공간상의 변화보다는 패션과 정보사이의 지속적인 관련성에 관한 고찰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제각기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던 도구와 접기들을 사라지게 하였으며 대신 장소에 얹어버리지 않는 제품들을 출현시켰다. 각 제품들의 이러한 장소성의 해체는 코드나 와이어의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장소의 이동과 편의성을 도모케 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종족인 잡 노마드(job nomade)족은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제공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는 접단으로 인터넷, 헤드셋, 휴대폰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이러한 디지털 유목민의 패션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이동성(mobility)으로,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위해 언제, 어디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동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²⁷⁾ 따라서 패션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양한 웨어러블한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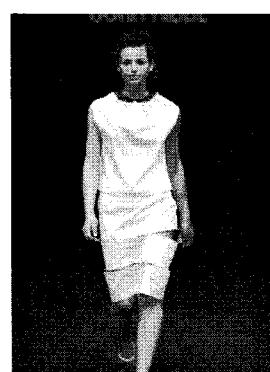
웨어러블 패션은 개인적 신체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과 소비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동성, 편의성, 실용성 등을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대개 신체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휴대성과 조작성을 고려하여 패션의 소재와 형태를 디자인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인지한다. 이를 위해 신체에 부착되거나 휴대되는 기기들은 점차 소형화되고 경량화 되고 있다. 신체와 관련된 기계의 소형화, 경량화는 다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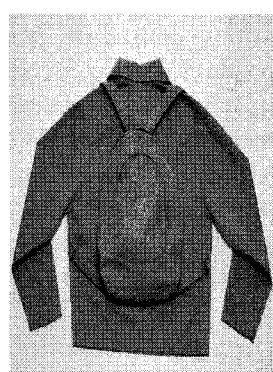
<사진 9> Simon Thorogood, 2000, F/W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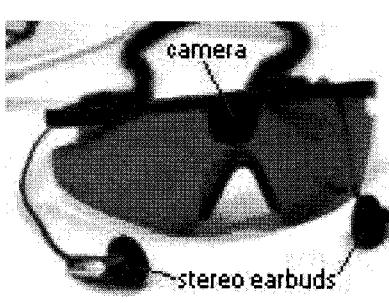
<사진 10> Issey Miyake, 2000, F/W²⁴⁾



<사진 11> John Ribbe, 2005, S/S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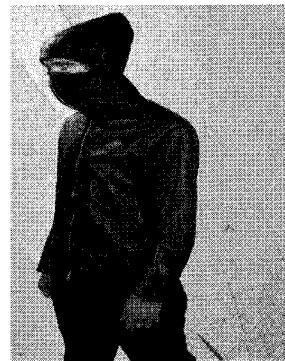
<사진 12> Mandarina Duck, Jackpack, 2001 F/W²⁶⁾



〈사진 13〉 Video Sunglass,
2001²⁸⁾



〈사진 14〉 라이프 세이버 재킷,
2007²⁹⁾



〈사진 15〉 Vexed Parka, 2000³⁰⁾

술의 진보로 인해 통합화로 전환되고 있다. 통합화는 사람과 물체 사이의 관계를 전혀 다른 것으로 전환 시켰는데,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스타일과 감각적, 정서적인 가치가 중시된 패션에서 이질적인 전자 산업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감각적 가치와 더불어 기능적인 가치까지도 고려의 대상으로 확대시켰다. 〈사진 13〉은 USB 비디오 선글라스(Video Sunglass)로서 숨겨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비디오 신호와 카메라 파워를 실행하기 위해 PC의 USB 포터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은 빛이 약한 상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모스(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³¹⁾ 카메라 칩이 아닌 90-135도 정도의 가시 각도를 가진 씨씨디(CCD-chargecoupled device)³²⁾ 카메라 칩을 내장하고 있다.

2)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외부환경과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패션은 주로 기능주의적인 특성을 지니며 이는 구성 시 이미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를 세심히 의도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패션은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공간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이나 실내 인테리어 용품과의 상호 관계의 고찰을 통해 제작되어 진다.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은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 등의 외부환경과 패션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으로, 패션 공간이 외부 환경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다양한 기능이나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다기능 복식을 통한 자연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과 트랜스포머블(Transformable) 복식을 통한 사회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으로 분류하여 특징을 고찰하였다.

(1) 자연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현대의 다목적, 다기능 의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시공연속체의 가변성을 보여주는 예로서, 패션에 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의복은 인체라는 움직이는 공간에 착장되어지는 예술이며, 따라서 의복 공간은 신체 자체가 지니는 유한한 공간에 움직임이라는 동작성이 포함된 유동적 공간까지 함의하는 확장된 의미로서의 공간적 개념까지 포함한다.

씨피 컴퍼니(CP Company)는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간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기후성, 내구성을 지닌 충분히 질긴 패션소재 개발에 주력하였다. 고기능성 폴리에스테르 소재인 다이나풀(Dynalfil)은 내마모성, 내유성, 방풍성, 방수성이 뛰어난 고기능성 직물로서 강철 실이 직물에 같이 직조되어 있고 강한 그물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씨피 컴퍼니의 1999년 컬렉션은 니켈 보호막으로 신체를 보호하고 전자파로부터 발생되는 유해한 요소를 차단해주는 카보가드(Carbobuard)라는 직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전

자파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도시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보호복이다. <사진 14>는 코오롱 스포츠가 영국 세인트마틴 패션스쿨과 함께 진행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상품화해 지난 10월 19일 ‘라이프 세이버 재킷(life saver jacket)’으로 출시한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 출신의 세바스찬 아담의 ‘익스트림 아머 재킷(extreme armer jacket)’을 상품화한 것으로 각종 레포츠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재킷 안에는 위급상황 시 상처와 조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가 내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상처를 소독할 수 있는 알콜, 지혈시 사용하는 비접착지혈패드, 방수 밴드, 오염된 물을 정수하여 먹을 수 있는 정수제, 찢어진 상처 부위의 응급 봉합에 사용되는 상처 봉합 클로저, 체온보호를 위한 비상용 보온포, 방수 성냥 등이 들어있다.

(2) 사회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패션과 사회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은 지속적인 변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는 복잡다단한 현대 도시생활에서 한층 강화되어진 신체 보호와 이동 가능한 거주지로서의 패션기능의 확대현상으로 고찰되어진다. 패션의 신체 보호 기능의 강화는 종교적, 국제적, 정치적 분쟁으로 야기된 공포와 불안감의 증폭에 기인한다. 각종 사회적 테러에 대비한 반테러리즘(anti-terrorism) 패션은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진 재킷,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후드, 마스크, 장갑, 고층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패셔너블한 낙하산 등이 있다. 이것들은 집이나 회사에서 연기 탐지기, 감시 카메라, 알람 경보와 같은 안전장치들 중의 하나로 다시 이용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³³⁾

초현대적인 패션은 도시에서의 신체보호를 위해 제작되며 차용자에게 건축적 기능과 연관되는 몇몇 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도시와 같은 환경에서 항상 존재하는 위협에 대비하고자 방탄 직물을 이용한 의복이나, 개인 경보와 보호대가 내장된 의복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진다. 또한 다양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성을 증가시켜 네트워크화로 진화해 가는 패션의

형태를 통해 이러한 적극적인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신체의 이동성을 늘리고 다른 시스템과 상호 보완하도록 기술화된 장치를 통해 기술과 패션이 결합된 디지털 패션으로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벡스드 제너레이션(Vexed Generation)은 현대 생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위험한 도시생활을 위해 방탄성과 파열방지가공 처리된 직물을 이용해 의복을 디자인하였다. 벡스트 제너레이션의 가장 뛰어난 작품인 ‘벡스트 파카(Vexed Parka)’는 2000년 F/W 컬렉션에서 발표된 의복으로, 1990년대의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진 감시에 대한 비평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당시 런던의 정치적 기후에 대응하여 디자인되었다. 이것은 눈 부위만 제외하고 입과 코 위까지 덮어버리는, 머리와 얼굴 대부분을 가릴 수 있는 후드가 특징이다. <사진 15>

다음의 <표 4>와 <표 5>는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의 구성방식과 디자인 특성, 디자이너를 각각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V. 결론

연속성은 정지되고 제한되어진 어떤 상태나 대상을 파악하는 무기체적인 ‘양적 연속성’과 시간의 흐름 내에서 지속적인 생성을 창조하는 유기체적인 ‘질적 연속성’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차이와 변화를 생성하는 현대의 복잡다단한 패션현상을 보다 거시적이며 통시적인 안목에서의 질적 연속성에서 파악하고자 하여 이를 철학적 중심사유로 고찰한 ‘베르그송의 지속’이나 ‘들뢰즈의 연속성’의 개념을 이론적 바탕으로 활용하였다.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은 ‘되기’와 시작적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지각적 연속성’, 공간의 확장, 공간의 상호관입, 유동적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적 연속성’, 건축적 구조 방식인 모듈러와 폴딩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경험에 의한 전이적 연속성’에 의한 신체와 패션사이의 연속성,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자연환경과 사회환경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에 의한 신체외부

<표 4>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와 패션사이의 연속성

분류	구성방식	디자인 특성	디자이너	분류	구성방식	디자인 특성	디자이너	
지각적 연속성	신체의 -되기	문신, 상흔, 피어싱, 바디 페인팅	-문신, 상흔, 피어싱 :반영구적 변형 -바디 페인팅 :일시적 순간적 변화	백남준 엔리코 라인	시각적 연속성	해체	-내부와 외부의 도치 를 통해 내부구조를 가시화	레이 가와쿠보 마틴 마르지엘라 후세인 살라얀 로버트 캐리
	패션의 -되기	형태 모방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 -다른 대상이나 기계의 형태를 모방	장폴 골티에 저스틴 손톤 티아 브렉아지 티에르 뒤글러		씨쓰루 룩	-투명성을 통해 비가 시적 공간의 가시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의 시각적 통합	알렉산더 맥퀸 이세이 미야케 율리 탱
공간적 연속성	공간의 확장	주름	-접힌 면을 중심으로 다른 공간을 형성 -주름의 펼침에 의해 의복 공간의 확장	이세이 미야케 준야 와타나베 알렉산더 맥퀸 발렌시아가	유동적 공간	블러링	-외복 구성요소들간의 탈경계화 -구성요소들의 자유로 운 결합에 의한 비 위 계성	후세인 살라얀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율리 탱 요지 야마모토 장폴 골티에
		오리가미	-접고 차르고 펼치는 방식을 통해 개방적, 입체적 공간창조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이 상호 소통	요시키 히시누마 준야 와타나베 다니엘 허맨		재구성	-역사성과 시간성 간 직, 새로운 것과 옛 것의 혼합 -전통적인 구성방식 을 일탈하고 새로운 구성 방식 제안	사이먼 쏘로굿 후세인 살라얀 율리 탱 미치코 코시노
	공기주입		-신체와는 별도로 밀 폐되어진 입체적 공 간 형성 -공기주입으로 독자 적인 조형미창조	미치코 코시노 이세이 미야케 월터 반벤텐동크 후세인 살라얀	미구성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구성방식을 해체	이세이 미야케 요시키 히시누마	
공간의 상호 관입	블러핑		-다양한 요소들이 상 호 결합되어 있는 비균질적 공간창조	셀리 파스 알렉산더 맥퀸 이세이 미야케	꼬임	-뫼비우스 띠와 같은 구조로 연결된 단일 평면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창조 -내부공간과 외부공 간의 경계를 소멸	이세이 미야케 미치코 코시노 후세인 살라얀 요시키 히시누 준야 와타나베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	모듈러 시스템	모듈 방식	-의복 각 부분은 변 화 가능한 모듈로 구 성하여 새로운 결합 이나 조합을 가능케 함	후세인 살라얀 율리 탱 존 리베 루시 오르타 갈야 로젠펠드	풀딩 시스템	풀딩 방식	-접고 평거나 각종 패스너를 이용하여 의복 형태, 실루엣 을 변화시키고 다른 폼으로의 변화를 가능케 함	만달리나 덕 자비에 블랭 이즈미 고하마 존 리베

와 패션사이의 연속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체와 패션사이의 지속적인 공간관계의 변화나 열린 공간을 구성하는 신체와 패션사이의 연속성은 첫째, 일련의 변화나 전환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인지되는 들판즈의 ‘되기’와, 숨겨져

있었던 내부구조와 구성 선을 드러내거나 투명성을 통해 내부를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각적 연속성인 지각적 연속성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공간적 연속성은 주름과 오리가미, 공기주입에 의해 패션이 차지하는 공간이 확대되는 공간의 확장, 블러핑과 꼬임에 의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 소통하

〈표 5〉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외부와 패션사이의 연속성

분류	구성방식	디자인 특성	디자이너	분류	구성방식	디자인 특성	디자이너	
비 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웨어러블 컴퓨터	가시적 결합	-신체에 착용 가능한 컴퓨터 패션과 컴퓨터 기술의 결합	후세인 샬라얀 씨피 컴퍼니	디지털 웨어	구조적 결합	-최첨단 기술과 패션의 결합 -비가시적 결합	챔드 테크놀로지 인피니온사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자연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기능적 결합 및 확장	-인간이 자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기능성 섬유를 이용하여 신체의 기능을 확장	율리 랭 씨피 컴퍼니 아키그램	사회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구조적 기능적 결합	-패션과 타 영역 간의 상호결합을 통해 패션의 기능 확장 -패션과 건축을 결합하여 패션 공간을 확장	루시 오르타 자비에 블랭 이즈미 고하마 제프 그리핀

고 내외부 공간의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공간의 상호관입, 블러링과 재구성, 미구성에 의해 패션에 있어서의 새로운 공간의 창조와 기존 공간의 해체, 각 공간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 등이 드러나는 유동적 공간으로 고찰하였다.셋째,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은 건축적 구성 방식을 차용하여 이를 패션에 도입한 모듈러 시스템과 폴딩 시스'으로 고찰하였다.

2. 신체외부와 패션사이의 연속성은 패션이외의 과학기술, 사회,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패션공간이 복합적이거나 가변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첫째, 인간과 매체, 혹은 매체를 통한 인간 사이에서 정보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와 디지털 패션에서는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을 드러내는 패션은 주로 기능주의적인 특성을 지니며, 다기능 복식을 통한 자연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트랜스포머블 패션을 통한 사회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으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철학적 사유를 실증적 단서가 되는 패션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연속성을 단절이나 동일상태의 계속과 같은 공간적 사고가 아닌, 차이의 연속적인 생성과 같은 지속적인 창조적 행위나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또한 시공연속체로서의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과정적 사유로 인지함으로써 현대의 복잡다단한 사회현상과 패션현상을 다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변화되는 질적 연속성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속성

은 차이와 변화의 순간을 드러내는 불연속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고정적이고 불변인 대상이나 상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며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거시적이고 동시적인 안목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타의 개념보다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사료되어진다. 본 연구는 패션이 철학적 사유의 객관적인 근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철학과 의류학 간의 학제적 연계를 도모하는 데에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Caroline, Evans, Susy, Menkes, Ted, Polhemus, & Bradly, Quinn (2005). *Hussein Chalayan*. Nai Publishers: Groninger Museum.
Bradly, Quinn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ew York: Berg.
Bradly, Quinn (2002). *Techno Fashion*. New York: Berg.
- 자료검색일 2006. 8. 5. 자료출처 http://www.cpcompany.co.kr/uomo_archivio.html/
자료검색일 2006. 8. 15. 자료출처 <http://www.ixilab.com/>
자료검색일 2006. 5. 13. 자료출처 <http://www.galyarosenfeld.com/>
자료검색일 2006. 11. 5. 자료출처 <http://www.iartedu.com/>
자료검색일 2006. 11. 5. 자료출처 <http://www.saferamerica.com/>
자료검색일 2006. 4. 21.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김성호 (1998). 현대건축사고론. 서울: 시공문화사, pp.

- 5-10.
- 香山壽夫 (1998). 건축의장강의. 김광현 역. 도서출판 국제, pp. 45-62.
- Ghirardo, Diane (2002).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 건축. 최왕돈 역. 서울: 시공아트, pp. 13-28.
- 손세관, 이수진 (1999). 우리나라 주택공간주성에서 보이는 전이적 연속성에 관한 연구. *환경과학연구*, 8(2), pp. 105-131.
- Hardt, Michael & Deleuze, Gilles (1996). *들뢰즈의 철학사상*. 이성민, 서창현역. 서울: 갈무리, pp. 81-93.
- 김형효 (1995). 베르그송의 철학. 서울: 민음사, p. 28.
- 이정우 (1999). *시뮬라크르의 시대*. 이정우(2000). *집힘과 펼쳐짐*. 서울: 거름, pp. 63-95.
- 이진경 (2005). *철학과 굴뚝 청소부*. 서울: 그린비, pp. 15-21, pp. 48-67.
- 4) 자료검색일 2006. 3. 18, 자료출처 <http://bibliothera.py.pe.kr/wwwb/>
- 5) 김지영 (2005). *들뢰즈와 문학-타자의 담론-*. 가을정기 학술대회집, 한국비평이론학회, pp. 10-18.
- 6) 손세관, 이수진 (1999). 우리나라 주택공간주성에서 보이는 전이적 연속성에 관한 연구. *환경과학연구*, 8(2), p. 109.
- 7) 어떠한 사물도 거기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창이 존재하지 않는 배제되고 고립된 방식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라 하였다. 즉 모나드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것으로 다른 형태로 분할되지 않으며 따라서 모나드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혼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최현주 (1997). *세르의 소통이론과 객관적 선형의 발생-플라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해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4-47.
- 8) 노은주 (2003). 현대 건축에 있어 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10.
- 9) 이진경 (2002). *노마디즘1*. 서울: 휴머니스트, pp. 36-52.
- 10) 들뢰즈는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단편들에 추상적인 시간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 Hardt, Michael & Deleuze, Gilles (1996). *들뢰즈의 철학사상*. 이성민, 서창현역. 서울: 갈무리, p. 10.
- 11) 플라톤적 이원론: 세계를 형상(원본)과 그림자(복사본)의 두 가지로만 분류하여 인지한 사상.
- 이정우 (2005). *들뢰즈와 존재의 일의성*. 가을정기 학술대회집, 한국비평이론학회, pp. 7-9.
- 12) 이정우 (1999). *시뮬라크르의 시대*. 서울: 거름, pp. 21-22.
- 13) 1997 S/S, 패션 디자인, p. 87.
- 14) 1999, S/S, 자료검색일 2006. 4. 1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15) 2005, S/S, 자료검색일 2006. 4. 2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16) 2000, S/S, *Techno Fashion*, p. 136.
- 17) Bradly, Quinn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ew York: Berg., p. 217.
- 18) CMOS: 시모스는 채널이 다른 모스(MOS) 집적 회로를 맞추어 구성한 칩으로 동작 속도는 늦지만 소비 전력이 매우 적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서 휴대용 계산기, 전자시계, 초소형컴퓨터에 널리 사용된다. 자료검색일 2006. 6. 26,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19) Michiko Koshino (2000). *Techno Fashion*, p. 157.
- 20) Yohji Yamamoto (1999). 패션 디자인 밤상, p. 135.
- 21) Yoshiki Hishinuma (2002). 자료검색일 2006. 4. 2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22) Hussein Chalayan (2005). *Hussein Chalayan*, p. 170.
- 23) Simon Thorogood (2000, F/W). 자료검색일 2006. 4. 15, 자료출처 [http://naver.com/](http://naver.com)
- 24) Issey Miyake (2000, F/W). 자료검색일 2006. 4. 21,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25) John Ribbe (2005, S/S). 자료검색일 2006. 5. 1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26) Mandarina Duck, Jackpack (2001, F/W). *Techno Fashion*, p. 118.
- 27) CCD: 전하결합소자를 의미하며, CCD의 경우 단가는 비싸지만 노이즈가 거의 없는 깨끗한 화질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CMOS는 단가는 CCD에 비해싼 편이지만 노이즈가 많아서 130만화소이상의 제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자료검색일 2006. 6. 26,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28) Video Sunglass (2001). 자료검색일 2006. 8. 5, 자료출처 <http://www.google.com/wearablecomputer/>
- 29) 라이프 세이버 재킷 (2007). 자료검색일 2006. 8. 5, 자료출처 <http://www.fck.or.kr/>
- 30) Vexed Parka (2000). *Techno Fashion*, p. 67.
- 31) Bradly, Quinn (2002). *Techno Fashion*. New York: Berg., p. 210.
- 32) 심효영은 현대 유목민을 디지털 유목민과 잡노마드로 분류하였다. 디지털 유목민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자유자재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집단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간적 한계를 스스로 초월한다. 이것은 실제 신체의 이동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잡노마드는 기존의 유목민 개념에 정보, 지식, 기술이 더해진 각종 휴대용 전자 정보와 단말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든지 필요에 따라 세계를 다니며 생활하는 현대인이다. 이들은 노동에 대한 사고의 전환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직업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는 집단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도 가능하다. 이들 집단은 모두 자유로운 접촉, 유연성, 이동성, 가벼움을 특징으로 자유와 박애를 추구한다.
- 심효영 (2005). 웨어러블 제품 트렌드 연구-웨어러블 기기의 이미지 데이터 구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23.
- 33) 자료검색일 2006. 3. 25, 자료출처 <http://www.saferamerica.com>
자료검색일 2006. 4. 26, 자료출처 <http://www.empas.com/namueparis/2309329/>

자료검색일 2006. 7. 4, 자료출처<http://iartedu.com/history/west/>

자료검색일 2005. 12. 14, 자료출처<http://web.chungnam.ac.kr/architecture/western-history/history12.html>

자료검색일 2006. 6. 21, 자료출처<http://www.naver.com>

자료검색일 2006. 8. 13, 자료출처<http://www.ixilab.com>